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중-03863호

창간 30 since 1989 주년
한라일보

P 공항가는길 주차장 무료셔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세차무료(외부) 주차비저렴
Tel. 744-1199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

漢拏日報 제885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5월 9일 목요일(음력 4월 5일)

수돗물 새는 만큼 생활하수도 '줄줄'

상수도 절반이상 누수에 하수도 상당량 땅속으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도 전체 40% 넘어 '심각'
도 "사업비 국가 지원 요청하지만 예산확보 난항"

제주지역 정수장에서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의 절반 이상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가정에서 발생해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생활하수 중 상당량도 누수돼 지하수에 침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상수도 유수율은 47%에 머물러 전국 평균(85.2%)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2025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의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현재 제주지역 수도관 총연장 5646.3㎞ 중 노후관은 6.22%인 351.5㎞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 단위의 상수관망 블록구축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노후관 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39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하수관도 상수관만큼이나 노후관이 많이 존재하지만 상수도와 달리 하수도는 누수량과 누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상수는 정수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누수되는 양을 측량할 수 있지만 하수는 모든 관로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누수량을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20년이 경과된 노후관을 대상으로 하수관리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 전체 하수관 4206㎞ 중 2017년 기준 20년 이상된 하수관만 1690㎞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16~2017년 일도2동과 연동·노형동 약 100㎞ 구간의 하수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 약 55㎞ 구간이 교체 또는 부분 보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돗물이 누수되는 것처럼 상당량의 생활하수도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전국적으로 노후 하수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정밀조사를 위한 기술진단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해마다 노후관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하수도 공사는 관경이 더 큰데다 땅 속 깊이 묻어야 해서 공법이 어렵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로는 감당하지 못해 국가에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한라환경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제26회 대상 주인공 공모
15일까지 신청서 등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일보사와 공동으로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제26회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의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개인, 단체, 기업, 학교, 교사, 학생 등을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분야는 한라환경대상, 한라환경실천상, 한라환경지킴이상, 한라환경퀴즈대회, 한라환경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공모전 등 5개 분야이며, 13개 부문을 선정해 한라환경대상(500만원)을 비롯해 총 17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응모는 개인, 단체, 기관, 기업, 교사, 학생 등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 및 추천서, 세부공적개요 및 증빙자료를 오는 15일까지 한라일보사 경영기획전략실(750-2523)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orca@hallailbo.co.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에 게재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한라환경퀴즈대회는 오는 6월 1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야외무대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개최된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시상식은 6월 5일 한라일보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청정환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은 도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한라환경대상 공모에 환경보전분야에 공헌한 많은 분들이 응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타
블랙박스 점검센타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완벽 투구 류현진… 개인 두 번째 완봉승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7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선발 등판해 9이닝 4피안타 무실점 역투를 펼친 류현진은 개인 통산 두 번째 완봉승을 거두며 내셔널리그 전구단 상대 승리를 달성했다. >>관련기사 11면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만전

제주도, 위험경로 방역 강화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넘어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위험경로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해외여행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경로를 분석해 해외여행객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집중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외여행객이 휴대하는 전 물품을 검역하고 있다.

또 양돈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436명에 대한 고용 신고 여부 점검과 방역준수사항을 지도·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ASF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해 위험경로별로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말에는 도내 모든 양돈농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9월 첫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8일에는 ASF 전파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의 돼지를 출하 완료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0일부터 농장별 담당관제를 운영하며 주 1회씩 전화 예찰과 월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담당관제는 289농가 127명으로 운영된다.

한편 ASF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떠났던 중국인 다시 제주 찾나

日 골든위크·中 노동절 연휴로 외국인 증가세
미국·대만·베트남 등도 급증… 내국인은 정체

최근들어 제주를 찾는 중국·일본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노동절(5월 1~5일)과 일본 골든위크(4월 27~5월 6일)의 영향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노동절을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18년 8136명에서 올해 1만4049명으로, 전년대비 5913명(73%)이 늘어났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2만2555명으로, 중국인의 비율이 62%를 차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도 마찬가지다. 골든위크에 제주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2018년 3223명에서 올해 3770명으로 547명(17%)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4만7568명) 중 일본인 관광객은 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관광객 회복세는 올해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관광협회의 3월 외국인관광객 입도 누계현황을 보면, 지난해 19만5083명에서 올해 34만5251명으로 77%가 늘어났다.

같은기간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0만5156명에서 올해 20만 4772명으로 95%가 증가했으며,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1만1585명에서 올해 1만5483명으로 33%나 늘어났다.

다른지역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년 같은기간 증감률을 보면 미국 132%, 대만 131%, 베트남 108%, 홍콩 70% 등의 순이다.

내국인 관광객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기간 297만1597명에서 올해 306만1243명으로 8만9646명(3.0%) 불어난데 그쳤다.

제주도는 원인으로 저렴해진 해외관광 비용과 제주노선 항공기 공급석 감소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3~10월 하계기간과 비교해 올해 현재 주 8회가 감편돼 공급석이 1만3746석이 줄어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휴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반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소진기자